

사진으로 보는 정기총회



◆ 회장인사말. 임연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무엇보다도 생산자 조직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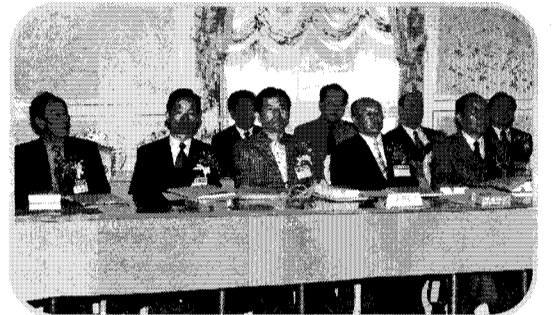
◆ 생약인의 윤리강령 낭독. 이날 총회에 참석한 1백20여명의 대의원들이 생약인의 윤리강령을 낭독하고 있다.



◆ 내빈. 오른쪽부터 경동약령시 협회 박이진 회장, 한약도매협회 운영진 회장, 농림부 채소특작과 임헌언 사무관, 정중용 주사가 내빈으로 참석했다.



◆ 협회장 표창패 시상. 우리 생약살리기와 회세신장에 기여해온 5명의 산하 회원들에게 협회장이 표창패를 시상하고 있다.



◆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만중 고문, 김동균 고문, 남정용 고문, 송경태 고문, 정형모 부회장, 이문섭 부회장, 허성무 부회장, 배영두 전사무국장, 황인구 부회장.

이사회 이모저모

3월16일 오후 2시 협회회의실에서 열린 통상 제90차 이사회는 33명 이사중 17명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98년 협회 사업실적 및 결산안 △99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 △정관 일부개정안 등 상정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적정운영’ 감사보고

○...98년 사업결산보고에 앞서 감사보고를 맡은 허영 감사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지난 회기보다 협회자산이 줄고 사업시행 부문에서 다소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나 그간의 거품을 제거하고 내실을 기한 사무국 운영은 어느해 보다 규모있는 살림살이었다"고 평가.

‘만추당귀’ 채종포 운영

○...이사회에 상정된 99년 사업계획안중 중점논의가 이뤄진 사항은 내추대성 '만추당귀' 종자 육성 보급에 관한 건. '만추당귀'는 말그대로 추대가 잘 서지않는 당귀 종자로 농진청 작물시험장에서 개발육성한 내추대성 품종. 협회는 농진청으로부터 '만추당귀' 종자 1kg을 가져다 채종포를 운영 종자를 생산 농가에 보급한다는 차원이다.

‘70%는 성공’ 예상

○...현재 '만추당귀' 종자 1kg으로 육묘생산을 진행중인 김성배 경

지도지부장은 "이중하우스 안에 트레이육묘 3백관을 생산중인데 지금까지 경과로 봐서 70%는 성공이라며 낙관적 전망.

‘만추당귀’ 종자 육묘사업 착수

○...추대육과 신당귀 생산량이 비례하리란 보장이 없고 신품종에 대한 소득분석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진청이 개발해낸 종자이니 만큼 생산자단체인 협회가 적극적으로 육성보급에 나선다면 지황시호와 함께 계약재배를 통해 사업성과 위상제고의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는 것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의 중론. '만추당귀' 종자 육묘 사업은 사실상 착수에 들어간 셈이다.

단일품목 상품화 개발 시급

○...한편 배성한 이사는 "세계적으로 8천5백여종 중국은 4천여종이 약재로 이용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1백50여종만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우리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약용작물의 이용가능성을 넓히고 단일품목으로도 약이 되는 품목들을 다양하게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생산자단체가 살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특별사업비 필요

○...또 송경태 고문은 "국산한약재의 중금속·표백제 검출문제가 아직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는 만큼

식약청등 정부기관과 협의 하에 국산한약재에 대한 품목별 중금속·표백제 검출정도와 원인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약 3천만원 정도의 특별사업비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내 종묘부 두자’

○...재정기반이 미약한 협회 현실을 반영하듯 이사들의 주요 관심 사항은 수익사업 창출방안에 모아졌다. 이와 관련 이문섭 부회장은 "협회 내에 특수사업부나 종묘부등을 신설해 신품종개발등 종자보급 사업에 주력함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량품종육성을 통한 종자산업의 중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시기임을 강조.

제5회 전시회 의견 분분

○...제5회 전시회개최안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우리생약살리기 차원에서 개최해 왔던 행사이니 만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명분에 비해 실리적인 면에서 너무 손해가 큰만큼 오히려 그 예산을 다른 특수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등의 서로 엇갈리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 결국은 집행부에서 전시회 개최에 따른 수지타산을 심도 있게 검토후 사업성에 따라 개최여부를 결정기로 위임됐는데 전시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한편에서는 앞으로의 전시회는 지

금까지와는 다르게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음도 강조. 판매부분에 치중하기보다는 국산한약재의 품질우수성 홍보에 역점을 둔 '국산약재 품평회'나 '국산약재 고품질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등 내실있는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내실있는 행사개최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행사프로그램기획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적극수용하고 참여해야할 회원들 개개인의 의식구조가 우선 개선되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높다.

조직기반 강화 필요

○...전북지부 김동윤이사는 "생산자단체인 우리협회는 아직 생산자 기반이 미약해 나무의 가지만 있고 뿌리가 없는 형국"이라며 생산자단체로서의 조직기반강화의 필요성을 역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은 협회에서 올해 새롭게 내놓은 계획중 하나. 모든 업무가 전산망으로 연결되는 정보화시대에 네트워크 사업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하면서도 시설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일부. 그러나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예산비용 범위 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사무국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시키는데 이사들은 만장일치 동의했다.